



◆ 미 수은의 Charter 연장 법안 미 하원 통과

미 하원은 5월 1일자로 미 수은의 Charter(업무권한) 연장과 연간 지원한도를 2005회계년도까지 매년 2.2%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

이미 지난 3월 미 상원의 의결을 얻은 바 있는 동 법안의 하원 통과로 미 수은의 Charter는 2005년 9월까지 연장되었다.

동 법안에 의하면 미 수은의 연간 지원 한도가 현재의 75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,300억 달러 수준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미 수은이 지원을 결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재무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미 수은

의 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였다.

또한,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거래와 부패방지법에 반하는 거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자금지원 결정시 금융지원 수혜국의 對테러 전쟁에 대한 협조 여부 등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.

미 수은의 업무권한은 2001년 9월 만료되었으나,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업무권한 연장을 통해 금년 5월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. 금번 개정안은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발효된다.

【워싱턴주재원】